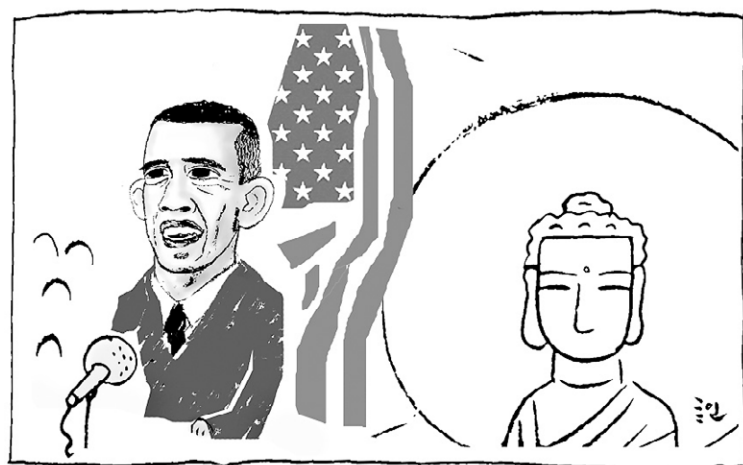


오바마 대통령 당선, 美불자 '후광' 있었네

해외불교칼럼

얼마 전에 끝난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미국인의 자유민주주의적 역량과 혁신적 진취성을 표출한 동시에, 온갖 인종과 문화 등이 함께 녹아드는 '용광로 미국' (America, the Melting Pot)의 면모를 유감 없이 과시한 일대사건이다. 불교 선사 페트리서 나사는 오바마의 출마 자체가 미국이 다인종 다문화의 합중국임을 명쾌하게 환기시켰다고 말한다. 대선캠페인 동안 미국불자의 행보에 관한 글이 적잖게 등장했다. 그 중에서 오바마에 대한 그들의 일치된 지지보다는 자유롭게 다양한 시각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하 일부 내용을 발췌 번역한 것이다.



확실적 도그마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신선하고 자유로운 선택(free choice)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불교를 통해 추구하고 터득하는 무상(Keep-Changing)의 철학 역시 오바마의 대선구호인 변화(Change)와 일맥상통한다.

얼마 전 '진보적이며 종교적인'이란 저서를 펴낸 로버트 존스는 미국불자에 관해 따로 서술했다. "불교에는 모든 결양과 배려의 미덕이 함축되어있다. 불자는 결코 총을 내두르며 어떤 변화를 박탈하려 들지 않는다." 이번엔 여러 불교관련 저서를 낸 저명작가이자 참선지도사인 사론 살스버그의 경우다. 뉴욕태생인 그녀는 지난 9월 '오바마 정신'에 감동하여 56년 만에 유권자 등록을 했다. "오바마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켜주는 형제자매로서 더 나은 비전을 실현해 가자고 주장한다. 나는 그 정신에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 그녀는 대선을 두 달 앞두고 미국 불교지도자로서 불자의 정치적 관심을 촉구하는 25명의 교수, 문인들의 공동성명에 동참했다. "각자 추구하는 정치노선은 다를 수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인식할 것은 똑바로 인식하고 똑바로 행동에 옮기는 미국시민의 권리를 지켜가야 한다."

"종교와 대중생활"이란 류 포핀의 조사에 따르면, 무슬림과 거의 비슷하게 미국 인구의 약 1퍼센트를 차지하는 미국불자는 가장 자유로운 종교집단으로 그 중 3분의 2가 민주당 성향이다. 오바마 진영

의 웹사이트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500명의 회원들이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오바마를 위한 불자' (Buddhists for Obama)란 단체는 23만 달러의 후원기금을 조성하고 1700회의 이벤트를 주관했으며 2만 6000건의 전화유세를 벌였다.

다른 한편, 맥케인 진영에는 불교단체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며 지원요청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미국 불자들은 오바마가 '변화'와 함께 제창한 '통합' (Unity) 역시 다르마의 실천이라 확신한다. 즉, 미국 특유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요소들 간에 '나와 남을 가르켜' 대립구조(對立構造)의 위험성을 지적함과 아울러, 연기상생(緣起相生)의 불교적 이상을 제시한 것이라 해석한다. 또 그들은 민주당의 기조가 인종, 계층의 차별 없이 모든 중생이 깨우침에 이를 수 있다는 붓다의 평등계몽사상을 반영한다고 강조한다.

그런가 하면, 일부 불자들은 불교의 다르마를 정치철학적으로 번안하고 정치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비를 금기시한다. 선불교를 수행하는 작가 찰스 존슨의 견해다. "내가 아는 한, 불교는 정치사회적 현실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야 한다." 끝으로 대니 피셔 스님의 의견을 들어보자. "다르마란 중생을 이롭게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최대 관심사는 자유 진보적 목표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다. 그러나 다른 불자들의 견해가 반드시 나와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번역: 성휴 스님 출처: BTN, F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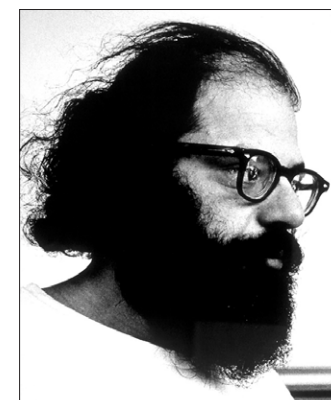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앨런 긴즈버그 ②

'아 해바라기'로 시인의 길

앨런 긴즈버그는 컬럼비아대학 법대 예과를 마치자마자 전공을 대뜸 문학으로 바꿔버렸다. 제도라는 굴레를 거부하는 어머니의 뼈뺀 저항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는 역시 제 갈 길로 가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마저 흥미를 못 느낀 그는 또 다시 앞으로 빠져나가 캠퍼스보다는 외부서클활동에 열성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같은 대학 선배로 평생의 스승이자 동료인 잭 캐루와, 그리고 다재다능하며 사해동포주의 사고를 지닌 윌리엄 버로우를

나그네의 여로가 다하는 곳 그 고운 황금나라를 찾아가도
욕망에 여위어버린 젊음



앨런 긴즈버그

백설의 수의에 감긴 장백한 처녀가 무덤에서 일어나 꿈꾸는 곳으로 나의 해바라기는 가고 싶이라

그는 당시 정황을 이렇게 회고했다. "그 때 난 장막을 내다봤어요. 거리모퉁이 벽돌 한 장 한 장마다 이어진 데서 손때가 묻은 자국을 읽

컬럼비아대 서클서 잭 캐루와 윌리엄 버로우 만나 긴즈버그, 깨달음의 순간 놓치지 않은 수행자

만나게 된다. 특히 버로우는 지성인집단인 세칭 일류대학과 뉴욕 맨허튼의 이른바 외곽문화, 거리문화, 또는 하층문화(subcultures)의 간격을 좁힌 자유지식인이었다. 아무튼 이리저리 헤매던 방랑자 긴즈버그에게 마침내 정착할 거점과 패거리가 생긴 것이다. 허버트 헝크, 존 홀즈, 루시엔카, 닐 캐시디 등이 포진한 이 서클은 그로부터 10년 후 비트 제너레이션과 샌프란시스코 르네상스를 주도한 야전지휘부이자 비밀야전의 역할을 했다.

1945년 긴즈버그는 모종의 이유로 컬럼비아에서 퇴학당했으나 이듬해 복학돼 2년 뒤에 졸업한다. 그 후 이 일 저 일 집적대던 그가 시인으로 입지를 굳힌 건 1949년 뉴욕 동부 할렘빈민가에 살 때다. 어느 날 그는 영국 낭만파 시인이자 자유예술가 윌리엄 브레이크(1757~1827)를 봤다. 물론 환상이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이 읊는 '아, 해바라기! (Ah! Sunflower)'라는 시를 환청으로 듣고서 내내 시인으로 살아가기로 작심했다. 대체 어떤 시일까? 나름대로 옮겨봤다.

아, 해바라기, 시간이 지거워 태양의 발자국을 세나니

울 수 있었어요 어느 손인가 그것들을 거기에 갖다 둔 거죠, 또 어느 손인가 온 우주를 내 앞에 내려놓은 거구요. 신은 바로 내 앞에 있었어요. 모든 존재 자체가 신이니까요."

그리고 좀 더 기이한 얘기가 이어진다. "내가 본 건 내 안의 어떤 가벼움이었죠. 내 몸이 문득 들러 올려지듯 기쁜 해졌어요. 우주적 인식과 진동, 그리고 성찰과 경이로운 그런 느낌이었죠. 나의 존재가 우주의 심층으로 뿔뿔이 순간적 깨달음이었죠."

일반통념과 달리, 깨달음이란 어느 특정종교의 전유물이 아니며 심산유곡에서만 이를 수 있는 경지도 아니다. 잿빛 콘크리트의 대도시의 그늘, 모진 살들이 비비적대는 우중충한 할렘 뒷골목에서도 누구나 이처럼 홀연히 깨달음과 마주칠 수 있다. 또 그처럼 홀연히 깨달음에서 멀어지기도 한다. 깨달음은 순간이며, 깨달음의 사라짐 또한 순간이다. 긴즈버그는 그 깨달음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일상 교행을 택한 수행자일 수도 있다. 그 특유의 유머가 들리는 듯하다. "어휴, 힘들어. 해탈자격증, 득도특허권도 매순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하더니."

<계속> 성휴 스님

구독신청·기사제보 | 02-2004-8200

"his face no longer was gold leaf"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금불상은 금박이 아니었어요

A nun, who searched for enlightenment in many temples, always carried with her a little Buddha she had carved for herself out of wood, and which she had covered with gold leaf. It was very pretty. One day she came to stay at a temple where there were many Buddhas. Whenever she burned incense before her golden Buddha, she begrudged the others any of the savor, and so she always used a little funnel that carried the smoke of the incense straight to her Buddha's nose. Within a week, her Buddha turned laughable - his face no longer was gold leaf, but black smut.

독도를 하고자 여러 절을 떠도는 한 비구니스님이 있었. 스님은 손수 나무를 깎아 만든 불상에 곱게 금박을 해서 늘 몸에 지니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은 불상이 많이 모셔진 한 절에서 머물게 됐다. 그런데 스님은 자신의 금불상에 향을 올릴 때마다 그 향연이 다른 불상들에게 건너가는 게 못마땅했다. 그래서 스님은 작은 깔대기를 통해 향연이 자기 금불상의 코 속으로 곧장 들어가게 했다. 일주일도 못돼 금불상은 금박이 아니라 새까만 검댕으로 우스꽝스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

번역: 성휴 스님

중 불교계 영어교육 실시

11월 3일 중국불교협회, 중국종교문화대화협회 및 상하이국제대학은 중국불교의 원만한 국제교류를 선양하고자 공동협찬으로 불자를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2006년도 제1차 세계불교포럼 개최지 중국 종교문화대화협회의 치사오웨이 부회장은 개최사를 통해 2009년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2차 세계불교포럼에 대비한 통역 및 번역사 양성이 시급하며 우선 전국 각 사찰에서 초급영어 구사가 가능한 승려와 신도 20명을 선발해 6개월간 집중 교육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협회 이칭 대종사는 중국의 국력신장에 즈음해 세계 각 지역의 불교관련단체와 교류가 시급하며 다양한 외국어를 통한 국제전법이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출처: 中國日報, 新華

중앙승가대학교 2009학년도 신(편)입생 추가모집

<정시모집 '나'군> 신입생 모집 요강

본교는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법 제67조에 의해 종단에서 운영하는 중립대학으로서 대한불교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입니다.

■ 모집학과 및 정원

계열	학과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재외국민 등)	비고
인문	불교학과	21	2	86
	역경학과	21		
사회	포교사회학과	21		
	사회복지학과	21		
합계(명)		84	2	

* 수시모집 합격자 및 정시모집 동일학군 타 대학 지원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 일반전형

◇ 지원자격

- 조계종 승려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9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위의 학력을 갖춘 타 종단의 승려로서 해당 소속 총무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전형방법

- 입학정원의 100%를 다음의 방법으로 선발함

고교내신성적	면접(인성)고사	합계
40% (400점)	60% (600점)	100% (1,000점)

- 고교내신성적은 고등학교(검정고시 포함) 성적 중 학인이 지정한 우수과목 4과목만 평가함.

■ 원서교부 및 접수

- ◇ 장 소: 본교 교학처
- ◇ 교부기간: 2008. 12. 8(월) ~ 2008. 12. 22(월)
- ◇ 접수기간: 2008. 12. 18(목) ~ 2008. 12. 22(월, 16:00까지)
- * 단,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 2) 고교졸업(예정) 증명서 1부
- 대입검정고시 합격자: 합격증 사본과 성적증명서 각 1부
- 3) 고교생활 기록부 사본 (2009년 졸업예정자포함) 1부
- 4) 승적증명서 (타 종단 승려는 해당 총무원에서 발급) 1부
- 5) 주민등록등본 1부
- 6) 사진(중단 의계규정에 따른 의계를 수한 반영합판 3×4cm) 5매 (2매 원서 / 3매 별도) - 사미(나)스님은 의계규정 준수 제출 요망
- 7) 총무원장 추천서(조계종 스님 외 타 종단 스님에 한함)

■ 입학원시대 및 전형료

- 1) 원시대 및 입시요강: 3,000원
- 2) 전형료: 60,000원

■ 전형일정

- ◇ 예비소집: 2009. 1. 14(수) 12:30 ~ 13:00
- ◇ 면접 및 인성검사: 2009. 1. 14(수) 13:00
- *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소집, 면접을 하루에 마칩니다.

■ 기타

- '09학년도 신입생은 전원 수행관 입방 생활을 하여야 함.
- 단, 편입생 및 타 종단 지원자는 수행관 입방을 할 수 없음.

편입생 모집요강

① 모집학과 및 정원

계열구분	학년	학점코드	학과	모집인원
인문· 사회계열	3학년 (일반편입)	13	불교학과	00명
		23	역경학과	00명
		33	포교사회학과	00명
	43	사회복지학과	00명	
	3학년 (학사편입)	14	전학과	00명

■ 지원자격

- 일반편입: 2009년 3월 대한불교 조계종 승남 만2년 이상 승려로서 2년제 대학졸업(예정) 자 및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사편입: 학사학위 소지 및 예정자로서 2009년 3월에 조계종 승남 만 2년 이상인 자
- * 타 종단의 승려도 위와 동등한 자격 및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편입 지원 가능

■ 전형방법 및 일정

- 신입학 전형일정과 같으며 서류(전적대학 성적) 및 면접전형으로 선발

■ 기타

-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 중 2009학년도 사미(나) 편입생은 졸업 후 구족계를 받을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처(입시담당자) 또는 문의하시거나 학교 홈페이지(www.sangha.a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중앙승가대학교

415-070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 ☎ (031) 980-7713~5